구약논단

제17권 4호(통권 42집) 2011년 12월 31일

박 영희(연세대 강사) 하나님 호칭(epithet)으로서의 מְצוּדָה(메쭈다/요새)와 מִשְׂגָּב(미쓰갑/산성)의 호격 사용 …… 167

이 논문은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들 가운데 은유로 표현된 מְצוּדָה(메쭈다/요새)와 מִשְׂגָּב(미쓰갑/산성)이라는 호칭을 연구한다. 저자는 논문에서 이 두 호칭의 용례를 분석하여 이들이 하나님 호칭으로서 의미하는 신 이해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들이 하나님 호칭으로서 시편에서 호격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밝힌다.

Park, Younghee מְצוּדָה and מִשְׂגָּב as YHWH epithet and their vocative use …… 167

www.kci.go.kr

하나님 호칭(epithet)으로서의 מְצוּדָה(메쭈다/요새)와 מִשְׂגָּב(미쓰갑/산성)의 호격 사용[1]

박 영희 | 연세대 강사

1. 서론

구약성서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수많은 표현들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야웨, 엘로힘 등의 신명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이스라엘과의 관계, 하나님의 행위와 역할 등을 기술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명사, 형용사, 분사의 단어 단위나 구 단위로 구성되며, 때로 신명과 결합된 복합어구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이 같은 표현들을 하나님의 '호칭(epithet)'이라 부른다.[2] 호칭은, 이름이 그렇듯이, 만들어 부르는 주체가 대상인 객체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내용을 간결하고 분명하게 보여준다.[3] 그러므로 하나님 호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했는지 연구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다.[4] 지금까지 하나님 호칭

1) 본 소고는 필자의 연세대학교 학위논문(Ph. D)을 기반으로 함을 밝혀둔다.
2) 본 소고는 epithet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호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3) 라무니(Aicha Rahmouni)는 우가릿 신들의 호칭에 대한 자신의 연구에서 우가릿 신들의 호칭이 우가릿 서기관들의 종교관을 반영해주는 심오한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Aicha Rahmouni, *Divine Epithets in the Ugaritic Alphabetic Texts*, (trans.) J. N. Ford, HdO (Leiden · Boston: Brill, 2008), xvii쪽.
4) 유 윤종은 시편의 최근 연구 동향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면서 연구의 주된 흐름과 분야별 주제

www.kci.go.kr

연구는 대개 오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엄밀하게는 호칭으로서보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행해졌는데, 이 분야에서 가장 먼저 종교사적 연구로서 시작을 알린 사람은 알트(A. Alt)였다.[5] 그는 "조상의 하나님(*Der Gott der Vät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족장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이 각기 자신의 부족신을 섬겼으며, 이 부족신들은 모세에게 나타났던 야웨와 다른 존재들이었으나 점차 엘로힘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로 함께 묶이면서 점차 야웨와 동화되고 결합되었다고 주장했다. 알트 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종교사적으로 하나님 이름에 관한 많은 연구업적을 냈고,[6] 주로 조상의 하나님, 가나안 신명에 연구가 집중되었기 때문에[7] 자연스럽게 연구 본문은 오경이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한편, 하나님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들로서 은유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은유는 하나님의 호칭으로서보다 주로 하나님의 타자성, 불가해성과 결부되는 기술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졌고 주로 문학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8]

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편 신학이나 고대 근동과의 비교 등의 연구들을 볼 때 야웨 호칭은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다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윤종, "시편의 최근 연구 동향," 「구약논단」 32집 (2009년 6월), 30–62쪽.

5) A. Alt, "The God of the Fathers," *Essays on Old Testament History and Religion*, (trans.) R. Q. Wilson (Sheffield, Eng.: JSOT Press, 1989), 1–77쪽. 알트에 다르면,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은 팔레스틴 지역 누멘들과 달리 특정 장소와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연계되는 부족신이었다.

6) W. F. Albright, "The Names Shaddai and Abram," *JBL* 54 (1935): 173–204쪽; F.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Ziony Zevit, "The Names of Israelite Gods," *The Religions of Ancient Israel: A Synthesis of Parallactic Approaches* (London · New York: Continuum, 2001), 586–609쪽; G. J. Wenham, "The Religion of the Patriarchs," *Essays on the Patriarchal Narratives*, (ed.) A. R. Milliard & D. J. Wiseman (Leicester, England: Inter–Varsity Press, 1980), 157–88쪽; D. N. Freedman, "Divine Names and Titles in Early Hebrew Poetry," *Magnalia Dei: The Mighty Acts of God*, (ed.) F. M. Cross, W. E. Lemke, P. D. Miller Jr.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Inc., 1976), 55–107쪽; W. H. Brownlee, "The Ineffable Name of God," *BASOR* 226 (1977): 39–46쪽.

7) 조 상열은 포프(M.H. Pope)가 우가릿어의 문법적 언어적 어휘적 설명을 통해 엘의 기능을 해석하고 분류했다고 소개하면서, 포프가 엘의 창조성과 관련하여 호칭을 논의한 바 있음을 짧게 언급한다. 그러나 이 역시 창조성이 주된 주제이며 호칭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조 상열, "우가릿 문헌과 구약성서의 관계: 최근 연구 동향," 「구약논단」 28집 (2008년 6월), 128–141쪽.

8) R. E. Clements, *Old Testament Theology: a fresh approach* (Atlanta: John Knox Press, c1978); 월터 브루그만, 「구약신학: 증언, 논쟁, 옹호」 류 호영/류 호준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Sallie McFague, *Metaphorical Theology: Models of God in Religious Languag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Kirsten Nielsen, "The Variety of Metaphors about God in the Psalter: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SJOT* 16/1 (2002): 151–59쪽; Gary Alan Long, "Dead or Alive?" *JAAR* LXII/2 (1994): 509–537쪽.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묶여 종교사적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조상의 하나님, 가나안의 신명들이나 또는 이스라엘이 전통과 경험으로 습득했던 하나님에 대한 은유적 표현들 모두가 유일신 신앙 야웨에 대한 신 이해를 투사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이들 모두 하나님의 호칭으로서 연구될 가치가 있고 연구될 필요가 있다. 본 소고는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 호칭에 관심을 두며, 이들 중에 특히 호칭으로서의 범주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은유적 표현을 우선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은유 호칭을 통한 이스라엘의 야웨 이해를 연구하기에 가장 적합한 책은 시편이라 할 수 있다. 시편이 다른 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하나님 호칭을 가지고 있고, 특히 독창적인 호칭을 많이 가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시문학으로서 은유를 풍부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본 소고는 하나님의 호칭으로 사용되는 은유 표현들 중에 מְצוּדָה(메쭈다/요새)와 מִשְׂגָּב(미쓰갑/산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들은 다른 책에서와 달리 시편에서의 용례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은유로 사용되고 있으며,[9] 하나님을 비인격적(impersonal) 지형지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 세계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들이 함께 사용된 두 구절이 기존의 번역과 달리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소고는 시편의 하나님 호칭들 가운데 מְצוּדָה(메쭈다/요새)와 מִשְׂגָּב(미쓰갑/산성)이라는 은유로 표현된 호칭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하나님 호칭으로서 담지하고 있는 신 이해가 무엇인지 살펴

9) מְצוּדָה(메쭈다)는 구약성서에 총 21회 사용되며, 시편 외에서 14회(삼상 22: 4, 5; 24: 22, 삼하 5: 7, 9, 17; 22: 2; 23: 14, 대상 11: 1 6, 대하 11: 5, 겔 12: 13; 13: 21; 17: 20, 욥 39: 28), 시편에서 7회(18: 3; 31: 3, 4; 71: 3; 91: 2, 144: 2; 66: 11) 나타난다. 이 중 시 66: 11절은 "그물"이라는 의미의 동음이의어이므로 실제로 מְצוּדָה(메쭈다) II의 시편 용례는 6회인 셈이며, 이들 모두 하나님을 지칭한다. מִשְׂגָּב(미쓰갑)는 구약성서에 총 17회 사용되며, 시편 외에서 4회(삼하 22: 3, 사 25: 12; 33: 16, 렘 48: 1), 시편에서 13회(9: 10[x2]; 18: 3; 46: 8, 12; 48: 4; 59: 10, 17, 18; 62: 3, 7; 94: 22, 144: 2) 나타난다. 시편 용례 13회 모두 하나님을 지칭한다. 그리고 두 단어의 시편 외 용례 가운데 삼하 22장 2절(מְצוּדָה), 3절(מִשְׂגָּב)은 시편 18편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다윗의 승전가로서 이 용례도 하나님을 지칭한다. Abraham Even–Shoshan, *A New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Jerusalem: "Kiryat Sefer" Publishing House Ltd., 1993), 698, 714쪽.

www.kci.go.kr

볼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 호칭으로서 시편에서 호격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2. 호칭으로서의 은유

מְצוּדָה(메쭈다)와 מִשְׂגָּב(미쓰갑)을 하나님의 은유 호칭으로 단정짓기에 앞서, 하나님을 장소로 표현한 은유적 표현을 하나님 호칭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아직 '호칭(epithet)'이라는 용어를 적용시킬 기준이나 범위에 대해서 공식적인 합의가 없기 때문이다. 호칭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공론이 명확히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호칭은 비슷한 용어들(예, name, title, appellation etc.)과 혼용되어 왔고,[10] 포함시키는 기준도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리 해왔다. 그러므로 본 소고 역시 논지 전개를 위해 은유(metaphor)가 호칭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을 우선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11]

옥스퍼드 사전은 호칭(epithet)을 "화자 혹은 저자가 대상 인물이나 물건의 특징으로 여기는 어떤 특성이나 속성을 지시하는 형용사"라고 정의한다.[12] 이 정의에 따르면 호칭은 본래 형용사에 적용된다. 그러나 옥스퍼드 사전의 부연 설명을 참고하면 범위가 좀더 확장된다.

> 문법학자들은 이 그리스 단어를 '형용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했지만, 그들은 이름과 동격인 기술적 명사(descriptive substantive)와 형용사를 구분하지 않았다.[13]

10) Martin Rose, "Names of God in the OT," D. N. Freedman (ed.), *ABD*, (vol. 4) (NewYork; London; Toronto; Sydney; Auckland: Doubleday, 1992), 1001–1011쪽. 로즈는 이 항목에서 야웨 항목과 그 외의 항목으로 나누면서, 엘을 비롯한 가나안의 신명들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가나안 신명은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호칭으로도 분류된다.

11) 용어 사용의 혼란을 막고 호칭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호칭에 관한 보다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호칭의 정의와 기준, 범주 등에 대해 좀더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지만, 본 소고의 분량상 제약으로 은유와 관련된 부분만 논의한다. 그러나 epithet의 적합한 용어 번역과 구약학계에서 사용하는 정의, 기준 등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12) *OED*, 2000 ed., s.v. "epithet."

13) 윗글.

그러므로 이 용어는 형용사와 명사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14] 그리고 형용사와 명사가 상당어구를 형성하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호칭의 구성 형태는 단어 단위에서 구 단위까지 확장될 수 있다. 나아가 기능적 측면에서 분사도 명사와 형용사의 기능을 하므로 호칭에 포함될 수 있다.[15] 그러므로 사전적 정의에 충실하면 '야웨 호칭'은 "내용상 야웨 하나님의 특성이나 속성을 지시하는 형용사, 명사, 분사의 단어 단위 및 구 단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은유가 야웨 하나님의 특성이나 속성을 지시하는가?"가 은유를 야웨 호칭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 3: 13-14)

위 본문을 보면, 야웨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자신을 존재 자체(being)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학자들은 '감추어진 하나님'이라고 설명한다.[16] 브루그만의 표현을 인용하면 "야웨는 이스라엘의 증언 가운데 완전히 알려지지도 않으며, 철저히 그 의미가 소진되지도 않는데, 그 이유는 야웨는 숨어 계시며, 자유로우시고, 놀랍게 하시며, 불가해하시고, 어떠한 축어적 표현 형태 가운데 가두어지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17] 그러므로 이렇듯 감추어진 하나님을 표현함에 있어서 은유는 최적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그렇게 활용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가질 만하다 하겠다. 브루그만 역시 이스라엘

14) Juhani Rudanko, "On the Form and function of Epithets in shakespeare's Coriolanus," *Studia Neophilologia* 77 (2005): 11–12쪽.

15) 고대 근동의 찬양시, 기도문 등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Illuminator of all, the whole fo heaven, who makes light the d[arkness for mankind] above and below, Shamash, illuminator of all, the whole of heaven, who makes light the dark[ness for mankind a]bove and below.." Benjamin R. Foster, "The Shamash Hymn (1.117)," (ed.) William W. Hallo, *The Context of Scripture: Canonical Compositions from the Biblical World*, (vol. 1) (Köln: Brill, 1997), 418쪽.

16) Kirsten Nielsen, 윗글, 151–52쪽; 월터 브루그만, 윗글, 384쪽.

17) 월터 브루그만, 윗글, 384쪽.

www.kci.go.kr

이 많은 은유를 사용해서 야웨 하나님을 표현했던 이유와 당위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 구약은 어떠한 단일한 은유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하나님에 관하여 말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은유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넓은 영역의 은유가 서로에 대해 긴장관계 속에 서 있으므로 그 결과 한 은유는 다른 은유가 미처 말하지 못한 부분을 말하기도 하며, 또는 한 은유가 다른 은유를 교정하기도 하고 혹은 한 은유가 다른 은유를 비절대화시키기도 한다.[18]

한편, 은유는 야웨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인위적 문학기법 그 이상의 것이며 미지의 존재를 인식하려는 본능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레이코프와 존슨(George Lakoff & Mark Johnson)은 은유가 인위적 창작이 아닌 자연스러운 사고활동의 결과물이며, 인간은 개념체계 자체가 신체적 경험에 근거하여 은유적으로 짜여 있어서 사고와 언어뿐 아니라 행동까지 은유적이라고 설명한다.[19] 레이코프와 터너(George Lakoff & Mark Turner)는 "은유는 우리의 세계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강력한 시적 언어와 교류한다는 것은 살아가는 문제와 씨름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시적 은유도 신체적 경험에 바탕을 둔 기본 은유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적 은유의 이해도 인간 본연의 신체적 경험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20] 이들의 개념적 은유설은 은유가 낱말 수준의 현상이 아닌 개념적 현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은유가 문체적 부속물이 아닌 심리적 이해기제임을 분명히 한다.[21] 그러므로 구약성서에서 야웨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은유로 기술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며,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의 은유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식과 이해를 반영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므로, 은유는 야웨 호칭의 범주에 포함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겠다.

그러나 모든 은유적 표현이 야웨의 호칭으로 간주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우가릿 신들의 호칭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성과를 보여준 라무니(Aicha Rahmouni)의 설명이 유용하다. 그는 자신이 연구 대상으로 하는 호칭의 선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는 호칭이 신명(Divine Name)을 대신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은 운문에서 신명과 대구(parallelism)로 나타날 때 가장 분명하다고 설명한다.[22] 라무니는 대구만을 제시했지만, 구문에서 신명과 동등한 자격과 위치를 차지하는 유형을 모두 포함시킨다면, 대구와 더불어 동격(apposition) 구문과 신명을 대체(substitution)하는 구문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

> 18: 46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צוּר 쭈르)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
> 28: 1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צוּר 쭈르)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
> 31:2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צוּר־מָעוֹן 쭈르 마온)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18) 윗글, 385쪽.

19) 아리스토텔레스가 "은유는 문자적 쓰임에서의 일탈"이라고 주장한 이래, 은유는 철학, 논리학, 수사학에 적절치 않으며, 문학에서는 선택받은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각별한 재능이라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레이코프와 존슨(George Lakoff & Mark Johnson)의 *Methphor We Live by*가 출간되면서 은유 이해에 대한 일대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는데, 이들은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적 개념에서 벗어나 은유가 인간의 언어와 사고에서 본질적인 요소라고 설명한다. George Lakoff and Mark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2003), 3쪽.

20) George Lakoff & Mark Turner, *More than Cool Reason: A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89), xii쪽.

21) 맥페이그 역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알았을 때마다 '이제 알겠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내가 새로운 것을 이미 알고 있던 것과 어떻게든 연관짓게 되었다는 말이다. 우리는 연결과 연상을 통하지 않고는 배우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샐리 맥페이그, 「은유신학: 종교언어와 하느님 모델」 정 애성 역 (서울: 다산글방, 2001), 68쪽.

22) Aicha Rahmouni, 윗글, xix–xx쪽. 라무니가 자신의 연구 대상으로 삼는 호칭의 선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Ⅰ. 호칭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단어들로 구성되며, 어떤 신의 특성을 표현하거나 세상에서 그/그녀의 역할을 묘사하거나, 만신전에서 다른 신(들)과의 관계를 묘사하거나 인류와의 관계를 묘사한다. 호칭은 신명을 대신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은 운문에서 신명과 대구로 나타날 때 가장 분명하다.

Ⅱ. 호칭은 정해진 문맥에서 하나의 신을 언급해야 하며 신들의 그룹을 지칭해서는 안된다.

Ⅲ. 주어진 문맥에서 호칭이 언급하는 신이 어느 신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Ⅳ. 호칭은 신명과 구별되어야 한다.

라무니는 우가릿 신들의 호칭의 형태에 대해서 둘 혹은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고 연계형이 많으며, 복합어구의 호칭인 경우에 고유명사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분사 형태의 호칭도 종종 등장한다고 설명한다(331–347쪽).

www.kci.go.kr

위의 세 구절에서 צוּר(쭈르/바위)는 모두 야웨 하나님과 관련된다. 그러나 시 18편 46절은 하나님과 동등한 목적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28편 1절은 대구를 이루는 동시에 호격이기 때문에 호칭으로 볼 수 있는 반면, 31편 2절은 하나님이 생략된 주어이고 צוּר(쭈르)는 보어이기 때문에 이 둘이 동등한 위치가 아니므로 צוּר־מָעוֹן(쭈르 마온)를 호칭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은유는 야웨 호칭의 범주에 포함되며 다만 신명과 동등한 자격 및 위치를 갖거나 명백히 신명을 대체하는 경우에 야웨 하나님의 호칭으로 간주될 수 있고, 동일한 표현일지라도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호칭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3. 호칭으로서의 מְצוּדָה(메쭈다)와 מִשְׂגָּב(미쓰갑)

1) 명명의 의미

앞서 호칭은 대상에 대한 주체의 인식과 이해를 투사하는 중요한 표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므로 호칭이 어떤 방식으로 생성되는지 그 원리를 알 필요가 있는데, 원리를 알아야 호칭의 참된 의미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약성서에서는 이름 외의 호칭이 생기는 에피소드를 기드온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23] 삿 6장 25-32절은 어떻게 해서 기드온에게 여룹바알이라는 호칭이 생겼는지 기록하고 있다.

>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삿 6: 32)

기드온은 야웨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고, 야웨를 위해 새로 쌓은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기드온은 바알 제단을 파괴했기 때문에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는 의미의 '여룹바알' 호칭을 갖게 되었다.[24] 여기서 '호칭은 대상의 특정 행위를 통해 그의 특징이 규정되는 방식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5]

한편, 스스로를 다른 호칭으로 부르게 하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는데 룻기의 나오미가 그렇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가족을 모두 잃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곳에서 나오미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다.

>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룻 1: 20-21)

야웨께서 나를 징벌하여 괴롭게 했기 때문에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합당치 않으니 대신 '마라'라고 부르라는 것이다.[26] 이 기록을 통해서 호칭은 상황과 경험을 반영하여 명명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호칭이 명명되는 몇 가지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의 독특한 행위나 사건, 혹은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불리어지고 규정될 수 있다는 것, 당사자의 존재 자체가 규정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상황에 맞게 불리어지는 합당한 호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사전적 의미

은유가 한 대상을 그것의 특성이나 속성의 유비를 갖는 다른 보조관념으로 일컫는 것이며, 앞서 명명 논의에서 호칭이 특별한 경험에 의해 생기거나 적절한 상황과 환경에 일치하도록 선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호칭으로 사용되는 מְצוּדָה(메쭈다)와 מִשְׂגָּב(미쓰갑)의 본래적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호칭으로서

23) 성서 기록상으로 호칭이라고 표현되지는 않는다. 다만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이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호칭으로 간주할 수 있다.

24) 실제 여룹바알은 "바알이 (나를) 변호해주기를" 혹은 "바알이 스스로 위대함을 입증하기를" 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cf. *HALOT* 1995 ed., s.v. "יְרֻבַּעַל." 삿 6: 25–32절 단락은 여룹바알이라는 호칭의 의미와 에피소드가 불일치하는 난해한 본문이다. 그러나 본 소고는 구약성서에서 특정 대상이 호칭을 갖게 되는 배경과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환으로 본 단락을 제시하므로 단어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도록 한다.

25) Juhani Rudanko, 윗글, 12쪽. 루단코는 "호칭은 때로 특정한 상황에서 화자에 의해서 특출나다고 여겨지는 특성이나 속성을 포함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26) 나오미 역시 이름이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마라 역시 여룹바알과 함께 호칭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www.kci.go.kr

의 이들의 의미와 사용에 좀더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사려된다.

(1) מְצוּדָה(메쭈다)

מְצוּדָה(메쭈다)는 동음이의어로서 어근 צוד "사냥하다"에서 파생된 מְצוּדָה(메쭈다/"그물")과, 어근 מצר에서 파생된 (메쭈다/"은신처, 피난처")가 있는데, 여기서는 후자에 해당된다. *HALOT*은 어근 מצר에 *표를 하여 이 어근이 가설적인 어근임을 알리면서, 아랍어 *maṣd/maṣād* "산꼭대기, 피난처"에서 그 의미를 유추해내고 있다.[27] 슝크(K. -D. Schunck)는 어근 מצר의 기본적인 의미가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이며, 여기서 "은신처", "피난처" 등의 전문화된 의미가 파생되었다고 설명한다.[28] *HALOT*은 מְצוּדָה(메쭈다)의 의미를 "산성"이라고 제시하는 반면,[29] 슝크는 מְצוּדָה(메쭈다)의 일차적인 의미가 종종 "산성"으로 알려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מְצוּדָה(메쭈다)가 "산성"의 의미를 갖는 것은 다윗이 시온을 정복하여 성을 빼앗는 장면과 관계되는 네 구절(삼하 3: 7, 9; 대상 11: 5, 7)에 한정되며 단어 표기도 מְצוּדָה(메쭈다)로 구별된다는 것이다.[30] 실제로 מְצוּדָה(메쭈다)의 시편 외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대개 다윗이 도망다니던 때에 몸을 숨겼던 장소들과 관계된다. 그 장소는 때로 굴이기도 했고(삼상 22: 4, 5; 24: 22 등), 수풀 언덕이기도 했다(삼상 23: 14, 대하 11: 16 등). מְצוּדָה(메쭈다)의 용례를 통해서 볼 때, 이 단어가 산성과 연결될 근거가 없다는 슝크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מְצוּדָה(메쭈다)는 갖추어진 건물이 아니라, 험준한 지형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서 몸을 숨기거나 피하기에 유용했던 장소를 지칭하는데 사용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한글 개역개정은 מְצוּדָה(메쭈다)를 '요새'와 '산성'으로 번역하고 있다.

(2) מִשְׂגָּב(미쓰갑)

מִשְׂגָּב(미쓰갑)은 어근 שׂגב"매우 높다"에서 파생된 명사이며,[31] 구약성서에서 총 17회 사용되는데 그중 13회가 시편 용례이며 모두 하나님을 지칭하는 은유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시편 외의 용례 4회 중 삼하 22장은 거의 시편 18편과 같은 본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일차적이고 세속적인 용례는 단 3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용어가 용례적으로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다만 같은 어근의 수동분사 נִשְׂגָּבָה(니쓰갑바)가 지형과 관련해서 חוֹמָה(호마/성벽) קִרְיָה(키르야/마을) 등과 함께 사용되어 높은 성벽, 강한 도시를 지칭하면서 강하게 요새화된 인공물과 관계되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32] 여기서 유추하면 מִשְׂגָּב(미쓰갑)은 주로 인공적으로 건축된 요새화된 건물과 관련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몇 안 되는 מִשְׂגָּב(미쓰갑)의 세속적 용례 중에 사 25장 12절과 렘 48장 1절은 인공적인 건축물과 관련되지만, 사 33장 16절이 험준한 자연 지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מִשְׂגָּב(미쓰갑)을 인공물로 쉽게 단정짓기는 어렵다. 다만 어근 שׂגב의 기본적인 의미에 충실하여 자연 지형이든 인공 건축물이든 시각적으로 높고 견고한 지형지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높고 견고한 지형지물이라는 특색에서 안전하고 보호받을 만한 "피난처"의 의미가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성서 용례를 통해서 본 מִשְׂגָּב(미쓰갑)은 "높고 견고한 성벽, 쉽게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지형 혹은 그 곳에 형성된 요새"이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피난처, 구원의 장소로서의 하나님 호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글 개역개정은 이 단어를 "산성", "피난처", "요새"로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다.

3) 호칭으로서의 의미 - 신 이해

앞서 사전적 의미를 통해서 מְצוּדָה(메쭈다)와 מִשְׂגָּב(미쓰갑)의 공통적인 요소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우며, 이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몸을 숨기고 피하기에 적절한 장소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두 장소는 각기 다른 유형의 특성을 띠는 듯한데, מְצוּדָה(메쭈다)는 접근하기 어려운 험준한 지형 쪽에 가깝다면, מִשְׂגָּב(미쓰갑)은 건축물과 함께 자주 사용되어 성벽, 요새 등의 인공물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 각각에 대한 하나님과의 유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소고의 제약상 두 은유 호칭이 비인격(impersonal)적이며 안전한 피난처로서의 장소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집중하고자 한다.

27) *HALOT*, 1996 ed., s.v. "צוד"; *HALOT*, 1995 ed., s.v. "מצר"; מצר항목에서도 מְצוּדָה(메쭈다)를 파생어로 소개한다.
28) *TDOT*, 1997 ed., s.v. "מְצוּדָה," by K. –D. Schunck.
29) *HALOT*, 1995 ed., s.v. "מְצוּדָה."
30) 윗글.
31) *HALOT*, 1996 ed., s.v. "שגב"; *TDOT*, 2004 ed., s.v. "שגב," by H. Ringgren.
32) 잠 18: 11, 사 26: 5; 30: 13 등.

www.kci.go.kr

신인 동형적 사고가 지배적인 고대 근동의 종교 세계에서 자신들의 신을 비인격 객체인 피난처로 부르는 현상은 보편적인 일이 아닐뿐더러 용례상으로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구원과 보호라는 개념이 인격 혹은 초월적 신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구원자, 보호자가 아닌 피동적 객체로 은유된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독특한 특성을 이룬다.

이러한 피난처 호칭은 산지 국가인 이스라엘의 자생적 은유라고 할 수 있다. 시편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스라엘의 정황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주변 국가들의 위협 속에서 전쟁을 해야 했으며, 개인적 차원에서는 원수들에게 쫓겨 다녀야 했다. 전쟁을 좀더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험준하고 높은 지역에 요새를 구축하고 그 곳에서 싸워야 했으며, 원수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는 높은 바위 틈, 우거진 수풀 등 자신의 몸을 숨기고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은신처가 있어야 했고, 그 곳이 그들에게 곧 생명이었다.

키일(Othmar Keel)도 하나님을 바위 및 반석으로 빗대는 표현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33]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서 하나님을 높은 피난처, 접근하기 어려운 성채, 혹은 (피난처인) 바위로서 찬양하는 본문들은 주변 경관의 자연지물을 마음에 두고 있을 수 있다. 영토에서 이런 최고 중요한 높은 지대는 군사 전쟁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포위당하곤 한다... 만일 탄원자가 야웨를 "나의 고지", "나의 산성" 혹은 단순히 "나의 (피난처인) 바위"로 설명할 때 팔레스틴 산지 국가의 특별한 특성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라면, "이스라엘 신앙심의 본래적 특성"의 일부를 감지할 수 있다. 확신이 "나의 산성"이나 "나의 바위" 같은 자생적 은유로 표현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의 기도와 대조적으로 강렬한 확신의 주제화는 시편의 주된 특성 중 하나이다.

키일의 주장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확신이 주변 경관을 통해서 생명을 보장받는 피난처로 고백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은 왜 강력한 보호자, 수호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비인격인 자연지물과 하나님을 유비하고 그 이름을 불렀는가 하는 점이다. 피난처는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대상이 아니다. 안전하고 강력하지만 스스로 움직이거나 능동적이지 못하며 정해진 자리에 위치한 비인격적 존재이다. 이런 특징들을 감안할 때, 비인격 은유 피난처로 불려지는 야웨 하나님은 어떤 특정행위보다 그 존재 자체로 자신의 역할을 하며 안전과 구원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편의 화자는 이런 은유를 통해서 행동하고 움직여야 할 주체는 자기 자신이며 자신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게로 찾아들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보이고, 야웨 하나님에게는 그저 이름의 의미처럼 존재 자체로서 존재해줄 것을 요청하는 신앙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4. מְצוּדָה(메쭈다)와 מִשְׂגָּב(미쓰갑)의 호격 활용

구약성서는 명명하는 것, 호칭을 생성하는 것을 קְרָא(카라), 곧 부르는 행위와 연결시킨다. 즉, 호칭이 불리어지는 것은 호격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본문 중에서 מְצוּדָה(메쭈다)와 מִשְׂגָּב(미쓰갑) 호칭들이 묘사적, 고백적 언어가 아닌 호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두 구절을 통해서 보겠다. 그 후에 호격의 기능이 무엇이며, 호격으로 발화(發話)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갖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다.

1) 구절 분석: 시 18편 2절, 시 144편 2절

이 두 구절은 מְצוּדָה(메쭈다)와 מִשְׂגָּב(미쓰갑)이 모두 등장하는 구절이며, 이들 외에도 다른 은유 호칭들이 열거되고 있다.[34]

> 시 18: 2
> יְהוָה סַלְעִי וּמְצוּדָתִי וּמְפַלְטִי אֵלִי צוּרִי אֶחֱסֶה־בּוֹ מָגִנִּי וְקֶרֶן־יִשְׁעִי מִשְׂגַּבִּי : (BHS)
> 개역개정)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33) Othmar Keel, *The Symbolism of the Biblical World: Ancient Near Eastern Iconography and the Book of Psalms*, (trans.) Timothy J. Hallett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8), 180–181쪽.

34) 필자는 이 두 구절에 열거된 모든 은유들을 하나님의 호칭으로 간주한다. מְצוּדָה(메쭈다)와 מִשְׂגָּב(미쓰갑)의 경우와 동일한 이유에서 호칭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www.kci.go.kr

시 144: 2

BHS) : הַסְדִּי וּמְצוּדָתִי מִשְׂגַּבִּי וּמְפַלְטִי לִי מָגִנִּי וּבוֹ חָסִיתִי הָרוֹדֵד עַמִּי תַּחְתִּי

개역개정)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두 구절은 한글 개역개정에서 여호와/야웨를 주어로 하는 확장된 명사 문장으로 번역되어 있다.[35] 그러나 이들 구문을 보면, 확장된 명사 문장으로 해석하기에 다소 무리가 따른다. 먼저 히브리어 구문에서 명사 문장/명사절이라 함은 동사 없이 명사 혹은 명사구가 "A+B"의 형태로 병렬되어 주어와 술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36] "A는 B이다"라고 해석한다. 접속사나 관계사에 의해서 한 단위의 길이가 확장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명사 문장은 두 단위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위의 두 문장은 명사 문장의 구성으로 보기에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시 18편 2절은 악센트 기호를 통해서 볼 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יְהוָה סַלְעִי וּמְצוּדָתִי וּמְפַלְטִי
אֵלִי צוּרִי אֶחֱסֶה־בּוֹ
מָגִנִּי וְקֶרֶן־יִשְׁעִי מִשְׂגַּבִּי

첫 번째 콜론은 명사 문장을 이룰 수 있으나, 두 번째와 세 번째 콜론까지 명사 문장으로 확장시키기는 어렵다. 두 번째 콜론의 경우, 두 개의 명사와 동사구가 있기 때문에 해석의 경우의 수가 많다. 대개는 동사구 앞에 관계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צוּרִי(쭈리/나의 반석)를 설명해주는 관계사절로 번역한다. 세 번째 콜론 역시 자체 내에서는 명사 문장이 형성될 수 있으나, 전체 구절을 명사 문장으로 보기는 힘들다. 결국 기존의 번역들은 시편이 시문학임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의 비문법적인 요소들과 여러 가지 요소들의 생략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한편, 이 구절을 야웨 호칭의 호격어 나열로 해석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미 앞선 1절에서도 יְהוָה חִזְקִי(야웨 히즈키/"야웨 나의 힘이여")라는 호격어가 사용되었고, 2절에 이르기까지 야웨 하나님을 2인칭으로 두고 그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호칭들을 호격어로 부르는 것이다. 다만 두 번째 콜론의 בּוֹ(보)의 3인칭 남성 접미사에서 인칭이 불일치하는데, 이 역시 왈키와 오코너(Bruce Waltke & M. O'Connor)의 설명이 명확하다.

> "호격 이후에는, 수식하는 구 혹은 절이 일상적으로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며 (고대 아랍어에서도 마찬가지다) 영어나 다른 언어들처럼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37]

다시 말해, צוּרִי אֶחֱסֶה־בּוֹ(에흐쎄 보)는 호격어 צוּרִי(쭈리)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3인칭 접미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2인칭으로 상정하고 호격어로 부르는 이 구절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 18편 2절의 본문에 충실하면 "야웨여,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여"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시 144편 2절은 1절의 연장선에서 볼 필요가 있다. 1절은 בָּרוּךְ יְהוָה(바룩 야웨/찬송받으소서)로 시작하며, 이후에 יְהוָה(야웨)의 동격들이 열거되어 2절까지 이어진다. 실제로 대부분의 영어성서들은 2절까지의 분사구와 명사들을 모두 יְהוָה(야웨)의 동격으로 열거하여 번역했다.[38] 다만 한글성서는 한글이 히브리어나 영어와 달리 목적어가 동사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한글다운 번역을 한 것으로

35) 한글 개역개정을 포함한 모든 한글성서가 명사 문장으로 번역했다. 표준새번역의 경우 "주님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로 번역하여 두 문장으로 나누었다. 이는 영어성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KJV/NKJV, RSV/NRSV, NAU, NJB 등 모두 명사 문장으로 번역했다. 다만, TNK(The New JPS Traslation– 2nd edition)만이 "O LORD, my crag, my fortress, my rescuer, my God, my rock in whom I seek refuge, my shield, my mighty champion, my haven"으로 열거하여 번역했다.

36) Bruce K. Waltke/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90), § 8.3c.

37) 윗글, § 4.7d.

38) KJV/NKJV, RSV/NRSV, NAU, TNK이 2절까지 모두 동격 열거로 번역했고, NJB는 "my faithful love, my bastion, my citadel, my Saviour, I shelter behind him, my shield, he makes the peoples submit to me"로 번역했다. 여기서 I shelter behind him과 my shield의 위치가 본문과 달리 바뀌어 있고, NJB는 분사에 대해 1절에서는 명사절로, 2절에서는 3인칭 남성 단수를 주어로 하는 동사로 번역했다.

www.kci.go.kr

보이는데, 이로 인해 2절의 하나님 호칭들이 호격으로 활용되는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은유적 표현의 고백으로 보이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시 144편 1-2절은 "찬송받으리라 야웨여, 나의 바위, 전투를 위해 나의 손을 가르치시는 이, 전쟁을 위해 나의 손가락을 (가르치시는 이), 나의 힘,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이, 내가 피할 나의 방패, 나의 백성을 내 아래에 엎드리게 하시는 이시여"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시 18편과 시 144편은 찬양시로서 시 서두에서 승리를 주신 야웨 하나님에 대해 그와 관계된 온갖 호칭들을 열거하면서 호격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2) 호격의 기능과 효과

호칭들을 호격어로 부르는 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가? 호격은 구문적으로 독특한 독립체이다. 음운 체계상으로는 주문장과 관련되어 있지만 구문상 주문장의 구성 요소는 아니다.[39] 맥카울리(James D. McCawley)에 따르면, 호격은 문장의 구성 요소가 아님에도 주문장 사이에 끼어 구조의 단절을 일으키며, 호격과 주문장의 구조적 관계는 구문 구조 자체보다 행동 구조에 기반한다.[40] 이렇게 호격은 문장 외적인 담론적 요소이며, 담화에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다. 호격의 기능의 첫 번째는 청자를 지시해주는 정체 확인의 기능이다.[41] 화자는 호격을 사용해서 청자를 호출하여 말을 걸고 담화에 끌어 들일 수 있는데,[42] 시편에서 화자들이 담화의 대상으로 삼는 대상은 주로 하나님이고, 시편 화자들은 호격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호출하여 자신의 발화 장면에 직접 가담하고 관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두 번째, 호격에는 화자가 청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표현적 기능이 있다.[43] 화자는 청자를 그의 이름, 즉, 고유명사로 부르기도 하지만, 그 이름에 상응하는 특정 표현을 호격어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선택되는 호격어에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인식, 감정, 평가 등이 반영된다. 일

39) Cynthia, L. Miller, "Vocative Syntax in Biblical Hebrew Prose and Poetry: A Preliminary Analysis," *JSS* LV/2 (2010): 347–348쪽.

40) James D. McCawley, *The Syntactic Phenomena of English*, (2nd ed.)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98), 751–752쪽.

41) 고 성환, "호격 구성의 기능과 화용적 특성 및 연결 제약," 「한국어 의미학」 18 (2005): 221쪽.

42) 윗글, 221쪽; 김 종도, "아랍어의 호격 연구," 「한국이슬람회학회논총」 4 (1994): 251쪽.

43) 고 성환, 윗글, 221쪽.

례로 하나님을 יְהוָה צְבָאוֹת(야웨 쩨바옷/만군의 야웨)라고 부른다면, 화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는 강력한 신이며, 전쟁 상황에서 승리와 구원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인 것이다. 세 번째, 호격은 청자로 하여금 화자가 의도하는 바대로 응하도록 촉구하는 기능이 있다. 다시 말해, 화자는 호격을 통해서 청자에게 명령 혹은 금지시킬 수 있으며,[44] 화자가 청자보다 높은 지위인 경우에는 명령의 형태로, 낮은 지위인 경우에는 요청 혹은 권고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명령이나 금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호격 이후의 발화와 좀더 깊이 관련되지만, 어떤 호격어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호격어 자체만으로 명령 혹은 요청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평서문과 호격어가 포함된 문장을 비교하면서 두 문장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야웨는 내 피난처이시니 내가 그 안에 피합니다.
b. 야웨, 내 피난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합니다.

a와 b문장은 의미상으로 "야웨가 화자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화자가 그 안에 몸을 피한다"는 내용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동일해 보인다. 그러나 구문이나 화용론적 측면에서 두 문장은 다른 점을 보여준다. a문장은 원인을 말해주는 부사절과 결과를 보여주는 주절로 된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과 관계로 연결된 복문 구조의 이 문장을 말하는 화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원인과 근거를 전달해주고 있다: 화자는 야웨에게로 피하는데, 왜냐하면 야웨가 그의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장의 청자는 불분명하다. 야웨가 청자일 수도 있고 불특정인 역시 청자가 될 수 있다. 한편 b문장은 호격어와 단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격어와 단문으로 구성된 이 문장을 말하는 화자는 자신의 발화 대상이 분명하다. 게다가 화자는 야웨를 이름과 더불어 호칭으로 부름으로서 현재 자신이 야웨에게 기대하는 바와 뒤이어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알려준다. 원래 호격어는 구문상 주문장과 분리된 독립격이지만 내용상 주변 문장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b문장에서 야웨는 명백하게 청자이며, 화자가 자신에게 기대하

44) 김 종도, 윗글, 250쪽.

www.kci.go.kr

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 화자의 부름 때문에 청자인 야웨는 그의 말에 집중하게 되고 그가 부르는 호칭을 통해 자신에게 요청된 역할을 알게 된다. 즉, 화자는 호칭을 호격어로 사용함으로써 짧은 발화로 매우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시편의 화자는 이런 호격을 활용하여 하나님을 청자로 소환해서 대화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고, 한편 하나님의 호칭을 선택적으로 부름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원하는 바를 요청할 수 있는 간접적이면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5. 결론

시편에서 사용된 피난처 은유 호칭들은 상당히 성숙한 신앙의 일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מְצוּדָה(메쭈다)와 מִשְׂגָּב(미쓰갑)을 포함하여 야웨 하나님을 피난처로 부르는 화자들은 약한 자신이 의지하고 기댈 존재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한편, 하나님을 피동적 객체로 규정해 놓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능동적 주체로 스스로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생명과 구원의 근거지인 피난처로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행위의 선택권과 주도권은 화자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구약성서를 통틀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에서 항상 야웨 하나님이 능동적 주체의 위치에 있었던 것과 사뭇 차별화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우주의 하나님이며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계의 주도권은 의심의 여지없이 야웨의 것이다. מְצוּדָה(메쭈다)와 מִשְׂגָּב(미쓰갑)을 포함한 피난처 은유 호칭이 나타나는 시편에서도 관계의 전반적인 주도권은 항상 야웨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화자들은 적어도 피난처 은유 호칭을 통해서 야웨에게 피난처로서 수동적인 임무를 부여하고 야웨를 객체의 자리에 위치시킴으로써 야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야웨를 찾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6. 참고문헌

고 성환, "호격 구성의 기능과 화용적 특성 및 연결 제약." 「한국어 의미학」 18 (2005): 217-242쪽.

김 종도, "아랍어의 호격 연구." 「한국이슬람회학회논총」 4 (1994): 249-264쪽.

샐리 맥페이그, 「은유신학: 종교언어와 하느님 모델」, 정애성 역, (서울: 다산글방, 2001).

월터 브루그만, 「구약신학: 증언, 논쟁, 옹호」 류호영/류호준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유 윤종, "시편의 최근 연구 동향," 「구약논단」 32집 (2009년 6월), 30-62쪽.

조 상열, "우가릿 문헌과 구약성서의 관계: 최근 연구 동향," 「구약논단」 28집 (2008년 6월), 128-141쪽.

Albright, W. F., "The Names Shaddai and Abram," *JBL* 54 (1935): 173-204쪽.

Alt, A., "The God of the Fathers," *Essays on Old Testament History and Religion*, (trans.) R. Q. Wilson, (Sheffield, Eng.: JSOT Press, 1989).

Brownlee, W. H., "The Ineffable Name of God," *BASOR* 226 (1977): 39-46쪽.

Clements, R. E., *Old Testament Theology: a fresh approach* (Atlanta: John Knox Press, 1978).

Cross, F. M.,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Even-Shoshan, Abraham, *A New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Jerusalem: "Kiryat Sefer" Publishing House Ltd., 1993).

Freedman, D. N., "Divine Names and Titles in Early Hebrew Poetry," *Magnalia Dei: The Mighty Acts of God*, (ed.) F. M. Cross/W. E. Lemke/P. D. Miller Jr.,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Inc., 1976).

Hallo, William W.(ed.), *The Context of Scripture: Canonical Compositions from the Biblical World*, vol. 1. (K ln: Brill, 1997).

Keel, Othmar., *The Symbolism of the Biblical World: Ancient Near Eastern Iconography and the Book of Psalms*, (trans.) by Timothy J. Hallett,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8).

Lakoff, George/Turner, Mark., *More than Cool Reason: A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www.kci.go.k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89).
Lakoff. George/Johnson, Mark.,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Long, Gary A., "Dead or Alive?" *JAAR* LXII/2 (1994): 509-537쪽.
McCawley, James D., *The Syntactic Phenomena of English*, 2nd ed.,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98).
McFague, Sallie., *Metaphorical Theology: Models of God in Religious Languag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Miller, Cynthia, L., "Vocative Syntax in Biblical Hebrew Prose and Poetry: A Preliminary Analysis," *JSS* LV/2 (2010): 43-65쪽.
Nielsen, Kirsten, "The Variety of Metaphors about God in the Psalter: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SJOT* 16/1 (2002): 151-159쪽.
Rahmouni, Aicha, *Divine Epithets in the Ugaritic Alphabetic Texts*, (trans.) J. N. Ford, HdO, (Leiden Boston: Brill, 2008).
Rudanko, Juhani, "On the Form and function of Epithets in shakespeare's Coriolanus," *Studia Neophilologia* 77 (2005): 11-24쪽.
Waltke, Bruce K. & O'Connor, M.,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90).
Wenham, G. J., "The Religion of the Patriarchs," *Essays on the Patriarchal Narratives,* (ed.) A. R. Milliard & D. J. Wiseman, (Leicester, England: Inter-Varsity Press, 1980).
Zevit, Ziony, "The Names of Israelite Gods," *The Religions of Ancient Israel: A Synthesis of Parallactic Approaches*. (London New York: Continuum, 2001), 586-609쪽.
The Anchor Bible Dictionary, (ed.) D. N. Freedman (New York: Doubleday, c1992).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ed.) Ludwig Koehler/Walter Baumgartner (Leiden; New York: E. J. Brill, 1994-2000).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ed.) G. Johannes Botterweck/Helmer Ringgren, trans. John T. Willis (Grand Rapids, Mich.: Eerdmans, 1977-2006).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2nd edition), (ed.) J. A. Simpson/E. S. C. Weiner (Oxford: Clarendon Pr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2000).

검색어
야웨 호칭
명명
비인격 은유
호격 활용
시편의 하나님 이해

מְצוּדָה and מִשְׂגָּב as YHWH epithet and their vocative use

Younghee Park, Ph.D.
Lecturer at Yonsei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Ph.D.

This study will investigate how the singers of the Psalms understood YHWH as reflected in the use of מְצוּדָה and מִשְׂגָּב epithets. After this, the manner and intention in which the singers used these epithets will be dealt with.

In order to carry out these tasks effectively, a lexicographical study and syntax analysis will be used. Lexicographical study helps us to look at how words and expressions occur in the Bible. This paper uses such study tools to check the frequency of the occurrence of YHWH epithets in the Psalms, providing a lexicographical meaning and dictionary definition. Through this process, this paper will show that how they reflect the understanding of YHWH. In terms of syntax analysis, this study will investigate that theses epithets can be translated as vocatives in the verse, not noun sentences.

www.kci.go.kr

In the Old Testament, Psalms witness to a greater number and variety of epithets for YHWH than any other book, and this proves that there were a diversity of understanding YHWH. The number of epithets directly reflects the degree to which the psalmist understands YHWH. Among these, YHWH epithet acting as a refuge is unique because it is Israel's own created metaphor, not being found elsewhere among Ancient Near Eastern countries. It seems to be influenced by Israel's geographical features which were in the hill country. And it is noteworthy that Israelites defined YHWH as an impersonal object and formed a unilateral relation with Him, not bilateral.

The singers of the Psalms used YHWH epithets in the vocative mood in order to express what they expected from YHWH. This is because the vocative functions to identify and describe the listener, and to activate the listener to do something. The singers of the Psalms ask YHWH to be a refuge as the foundation of salvation by using the impersonal metaphorical epithets, and also clarify their own faith and will to go forward actively to YHWH.

Key words

YHWH epithet
Naming
Impersonal metaphor
Vocative usage
Understanding of YHWH in the Psalms

■ **투고일**: 2011년 10월 1일
■ **심사일**: 2011년 10월 18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0월 26일

www.kci.go.kr